사랑과 혼이 담긴 책

이원복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

해마다 봄만되면 어김없이 떠들썩해진다. 또다시 '어린이'의 계절이 왔기 때문이다. 갖가지 행사, 잔치, 선물… 각 기관은 기관대로 판에 박은 생색내기에 요란하고 각종 업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목 챙기기에 열중한다. 마치 대한민국은 어린이를 위하여 존재하며, 어린이는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정녕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한다. 출판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분명 올해에도 어린이날 대목을 겨냥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도서출판 물량은 가히 세계에서 몇손가락안에 들만큼 엄청나다. 그러나 그 질을 따지고 들면 자신있게 세계수준 운운하며 나설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미려한 포장, 과소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고급인쇄와 종이,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가격… 그 멀쑥한 허우대 속에 갖춰진 내용 가운데 정녕 '내일의 기둥'이오, '이 나라의 미래'라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 것인가? 도에 지나친 과열 교육열에 편승한 학습운운…을 내세운 도서들은 현실에 적응키 위한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치자. 그러나 아동도서계에 범람하는 외국책 무단복사, 날치기 편집내용, 인기에 편승한 극히 불건전한 오락물, 엉성한 알맹이에 돈 몇푼 아끼려고 마구잡이로 제작한 저질스러운 일러스트… 엄청난 고가의 전집물의 범람, 일본문화의 무절제한 복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가 우리 아동도서 출판계에 횡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판계의 영세성, 그에 상반되는 대형출판사의 비대화와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도 또하나의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출판자본의 대소를 불문하고라도 아동도서만은 양심과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외면해서는 안될 한 나라 문화의 마지노선이 아니던가? 현실은 이상에 선행하며, 생존은 문화에 선행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영세한 자본으로 생존에 급급한 군소 출판사들에게 돈보다도 어린이 마음의 양식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저질 출판물을 만드는 행위는 범죄나 다름없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언제나 선진국 아이들처럼 알차고 유익한 기획과 편집, 혼과 애정이 깃든 책들을 읽으며 진정 '꿈과 용기'를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천박하고 말초적인 명랑물, 자극적이며 비속한 공포, 요괴물, 엉터리 내용에 정가 올리기 위한 초호화 인쇄 장정본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해맑은 넋에 단비와 같은 지혜의 샘과 고운 정서의 강물에 마음을 담글 수 있을 것인가?

어린이 헌장이 무색할 만큼 이땅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상혼에 철저히 이용되고 그들의 꿈과 정서를 약탈당하고 있다. 이 새봄, 다가오는 어린이날에 호화찬란한 소비품으로서의 아동도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혼과 사랑이 담겨진 책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진정한 아이사랑일 것이다.

출판저널
1992년 4월 5일 제103호
격주간·매월5,20일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뉴스 2 "書體도 저작권 보호받아야 한다" · 외
초점 4 출판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건너 불'서 '발등의 불' 돼 대책마련 시급
현장취재 6 끝내 안팔린 책들의 마지막 기항지
'표지갈이'서 폐휴지 신세 전락까지 재고도서 천태만상
서평 8 윤여덕 「한국초기노동운동연구」 — 김경일
송호근 「시장과 이데올로기」 — 이은진
9 처치랜드 「물질과 의식」 — 김선희
10 커즌즈 「희망, 웃음과 치료」 — 유계준
이순흥 「한국전통혼인고」 — 조효순
11 박철화 「감각의 실존」 — 임태우
리뷰 12 대학 구내서점 유형별 운영실태 — 임종성
직영 · 임대 · 중간형태의 세 갈래로 나눠져
출판화재 14 문헌정보 서비스 어떻게 이뤄지나
15 '禁域'의 오랜 장막 걷는 한국의 軍
저자인터뷰 16 「언어학의 이해」 낸 김방한 교수
연재기획 18 도서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상캠페인 4
추천도서 19 문화부 선정 우수 古典 22종
이 책 그 사람 20 「우리나라의 궁도」 낸 유영기씨
「하얀 지평선」 낸 장순근씨
21 「스무편의 사랑의 …」 번역한 추원훈씨
「합당블루스」 펴낸 박재동씨
해외출판 22 올빼미 독서광들의 천국, 독일서점 · 외 — 이희재
컬러화보 24 헌책이어서 더 새로운 한바탕 책잔치
'92 알뜰 도서교환시장 현장 스케치
세계의 책 26 한 도시에 관한 뛰어난 안내서 · 외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